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7. 22.(금) 09:30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오화세 (02-2100-2801)
		담당자	사무관 송용석 (02-2100-2805)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국민체감도 및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 6명에 표창

1 '22 상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7.22.(금)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금융위 서포터즈 20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 7.15.(금)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박기홍(KCB), 윤민섭(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양근복(법무법인 주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 수상사례 주요 내용

-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제고하는 사례가 4개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조회, 이체 등의 기능에 고령자 모드(금융앱)를 제공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사례와
 - 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체국과 편의점을 통한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 공동지점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낸 사례와 약 1조 5천억 원의 잠자고 있던 자산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돌려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제고 사례(4건) >

- ① “모바일 금융앱 내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다”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 마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② “전국 2천개 우체국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다”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은행과)
- ③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다”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개선방안 마련」 유도) (가상자산검사와)
- ④ “찾아가지 않은 16조 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쏜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금융소비자정책과)

- 다음으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사례 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하여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증권사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 사례와
- 그간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혁신적인 규제개선 사례(2건) >

- ① “커피 한 잔 값으로 주식투자”, 소수점 주식투자 허용
(국내외 상장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 (자본시장과)
- ② “금융업권의 숙원,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다”
(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전자금융과)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듬는 좋은 정책들이었다”고 격려하면서
-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도 훌륭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주요 내용
<p>「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마련 (변후정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마련하여 은행별로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회,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소 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모드 :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 제공, 한 화면 내 적정 수준의 정보 제공 등 ○ (성과) 동 지침은 민·관 협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들은 '23년 상반기까지, 고령자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하여 고령고객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 * 은행별 순차적으로 개발·출시 예정('22.2.25.기업은행, '22.4.30.산업은행 등) - 다른 금융업권(카드, 증권, 보험 등)으로의 확대도, 동 지침의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 - 또한, 동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 제공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연석회의의 13개 기관 ○ (적극행정) 금융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 권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로 간사 은행을 지정하여 책임성 제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 원칙과 원칙별 사례로 구성
<p>「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권나림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입·출금 등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 하고,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 ○ (성과) ①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우체국에 대한 업무위탁 등), ②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은행법 개정사항)을 추진, ③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 ④고령층 등의 디지털 금융접근성 제고 ○ (적극행정) 우체국 업무위탁 관련 서비스 제공지역, 수수료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 있었고, 통합전산망 부재 등 기술적인 어려움도 다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TF」 3차례 회의,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 아울러 '22년 중 공동 전산망 구축 및 '23년 상반기까지 동 시스템 고도화 추진 합의

	사례	주요 내용
	<p>국·내외 상장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 (신용진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온전한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 ○ (성과) '21.9월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기존 2개 증권사에 더하여 신규로 18개 증권사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중개를 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하여, ❶개인투자자 저변 확대, ❷예산제약 하에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❸증권사별 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을 유도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도 '22.9월부터 제공예정) ○ (적극행정) 수차례 업권 간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투자자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년 여 기간동안 법무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과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적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p>가상자산사업자 자율개선 유도 (김준환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가상자산법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 입법적 공백 상태에서, 제2의 루나 사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스스로 현재의 상황을 돌이켜 진단하고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자율개선 여건 조성 ○ (성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 (6.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상장부터 폐지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위기상황 발생시 공동대응 방안 모색,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및 교육 강화 등 제시 ○ (적극행정)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부족한 점을 보완·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입법적 공백으로 인한 시장 위험 보완
장 려	<p>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개선 (김종식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금융보안사항이 획일적으로 세세하게 규정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곤란, 디지털 금융의 핵심인 "대량의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 (성과) 금융권의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활용도 제고, 금융권의 책임하 금융보안 자율성 강화 ○ (적극행정) 금융전산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분리 규제) 개발·테스트 분야 등 금융전산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분야부터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 (클라우드 규제)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중복·불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

사례	주요 내용
<p>쏠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이지형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2년 연속 증가하여 '21년말 기준 15.9조원 * ('19년:12.3조원, '20년:14.7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성과) '22.4.11.~5.20. 6주간의 쏠 금융권「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캠페인 결과, 약 1조 5천억 원*(잠정)의 잠자고 있던 자산이 금융소비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음 ○ (적극행정) 금융위·금감원 등이 주관하여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를 실시 하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성 개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쏠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홍보 강화) RCS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고객 개별 안내를 실시하여 신속한 환급을 독려